

2021 October

Hana

Market Monthly

연구위원 서정훈
Tel. 02-729-0195
seojh@hanafn.com



목차

I. 금리	3
I. 달러/원 환율	5
III. 엔/원 환율	7
IV. 유로/원 환율	7

금리

9월 동향

미 고용지표 부진 속에 연준의 향후 경기에 대한 하향 판단에도 9월 FOMC에서의 매팍적 금리점도표 상향 등이 조기 긴축 우려를 강화하며 미 국채 금리 급등세에 연동한 국고채금리도 급등세 시현

미 고용지표의 부진에도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전망과 미-중 정상간 통화 영향 등이 위험선호를 자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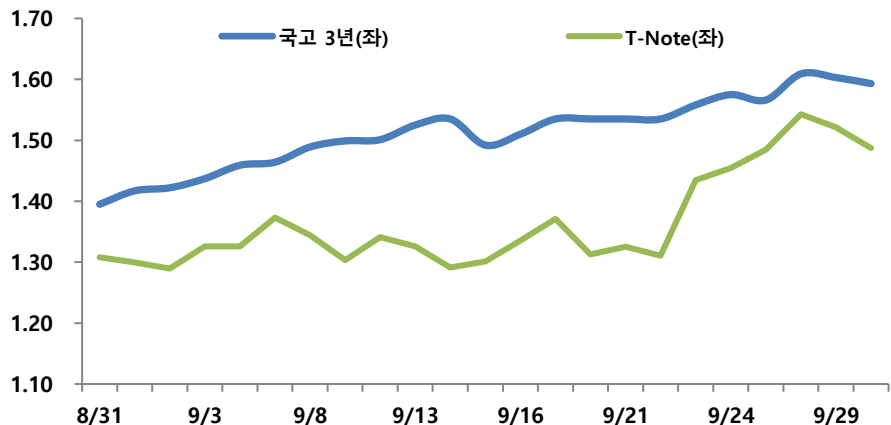
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 관련 이슈에 하락

FOMC의 매팍적 금리 점도표 변경 이후 시장의 연속적 테이퍼링 기대감

- 9월 초, 국내 수출 개선 등에도 미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영향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양상. 이후 국내 금리인상 기조 재확인과 미-중 정상외의 우호적 통화 소식 등이 시장의 위험 선호를 높임에 따라 상승 흐름 시현
 - 9월 초, 8월 수출 개선 소식과 직전 금통위 금리인상 여파 이어지며 상승 출발 했으나, 미 고용지표의 큰 폭 부진에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커진 점이 상승 흐름 제한
 - 이어 한은의 매팍적 색채 재확인 속에 경제부총리의 금리인상 전망 등의 반영으로 상승세 이어진 가운데, 미-중 정상간 통화 이후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된 점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
- 중반, 연준 베이지북 경기 판단 하향, 한은 국내 잠재성장률 하락 발표, 은행권 LCR 규제 관련 기대감 등으로 하락 전환한 국고채 금리는 FOMC를 앞둔 경계감 속에 소폭 상승 전환
 - 중반, 미 연준의 베이지북 경기 판단 하향 속 한은에 국내 '21~'22년도 잠재성장률 2% 수준으로의 하락 및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 비율(LCR) 규제 관련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금리 하락 전환
 - 여기에 미 8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시장 예상을 하회함에 따른 미장기금리 하락에 연동 양상 후 소폭 상승
- 후반, 9월 FOMC에서 매팍적 금리 점도표 변경 등의 영향 이후 시장의 테이퍼링 기대감 강화 등으로 미 국채금리 급등세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도 큰 폭 상승 흐름 시현
 - 후반, 추석 연휴기간 중국 헝다 그룹 파산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미 국채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국고채 금리도 이를 반영 소폭 하향 추세 영국 시현
 - 그러나 FOMC에서 매팍적 금리 점도표 인상 이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속에 시장의 테이퍼링 기대가 반영되며 미 국채금리 급등에 연동 양상 등으로 큰 폭 상승 흐름 시현하며 마감

주요 시장금리 추이

9월 평균
국고채(3년): 1.51%
T-Note(10년): 1.36%



10월 전망

9월 FOMC에서의 금리점도표 상향 이후 시장 인플레이션 기대가 미 금리상승 견인하는 가운데 국내 경제 상황을 반영한 한은 추가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국고채 금리 상승에 영향 미칠 전망

평균	1Q21	2Q21	3Q21	4Q21
국고채(3y, %)	1.04	1.12	1.45	1.65 ^(F)

매파적 금리 점도표 상향과 장기에서도 인플레이션 유지될 수 있다는 연준 시사가 대외 금리 상승 통한 국고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- 연준은 고용 추가 개선 확인 전 테이퍼링 시행에 다소 비둘기적 기조로 보이나, 금리 점도표 상향에 따른 시장 테이퍼링 기대와 인플레이션 상승 등이 국내외 금리 상승 요인
 - 9월 FOMC에서 연준은 고용지표의 추가 개선 확인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테이퍼링에 대해 다소 비둘기적 스탠스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
 - 그러나 매파적 금리 점도표 상향 및 인플레이션이 공급망 병목현상에 의해 장기적으로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함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에 의한 미 국채금리 상승 추세 이어질 가능성이 국고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

중국 기업 신용리스크 상존 속 부채 이슈 등에 따른 중국 경기 불확실성의 국내 경제 전이 가능성 상존

- 대내적 수출 개선 등 경기 성장 경로 유지에도 국내 전력 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 요인 늘어나고 있는 상황. 이에 국내 경기선행지수 확장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중국 기업신용리스크 확대 등에 따른 불확실성 영향은 국고채 금리 상단을 다소 제한 할 것으로 예상
 - 대내적 하반기 성장 경로 유지되나 물가 불안 요인 상존 속에 경기선행지수 확장세가 주춤하는 양상
 - 여기에 중국 기업 신용리스크 확대 및 부채 이슈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측면은 중국에 대한 국내경제의 의존도를 감안할 때 국고채 금리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10월 국고채(3Y) 금리는 1.60-1.70% 예상

- 국내 경기선행지수 확장세가 다소 낮아졌음에도 위드코로나의 안정적 진입이 예상되는 현 국면 속에 대외적 연준 매파적 금리점도표 상향 등이 한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이에 대해 국고채금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
 - 국내 백신 접종 확대 속에 위드코로나 국면으로 점진적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점도표 상향 이후 이를 반영한 국내 국고채 금리도 점차적 상승 흐름 이어질 전망
 - 여기에 한은과 정부 정책 당국의 금융불안정성 경계를 위한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의 점증이 선제적으로 시장 금리의 움직임을 견인하고 있는 측면도 국고채금리 상승 요인

상승 요인 vs. 하락 요인

상승요인	하락요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점증 • 9월 FOMC 이후 테이퍼링 기대감 지속 • 연준의 매파적 금리 점도표 상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국 기업신용 리스크 확대의 국내 경제 전이 가능성 점증 • 국내 경기선행지수 확장세 다소 약화

자료: 하나은행

달러/원 환율

9월 동향

중국 헝다 그룹 파산 리스크 등에 따른 위험회피 요인 외에 FOMC 이후 재차 시장 테이퍼링 기대 확대에 의한 미 국채금리 상승 등이 달러 강세 견인함에 따라 환율은 1,180원대 중반 상향

잭슨홀 영향 반영 후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금리 급등세로 이어지며 테이퍼링 기대에 따른 달러 강세 전환

- 월초, 잭슨홀의 비둘기적 스탠스 영향과 8월 국내 수출 호조 등으로 1,150원대 출발 후, 재차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에 미 금리 급등 반영하며 1,170원대 근접 시현
 - 8월 잭슨홀 미팅의 완화적 스탠스 영향 이어지며 1,150원대 하락 출발 한 환율은 국내 8월 수출 실적 개선 영향과 미 민간고용의 예상치 하회 등에 따른 달러 약세 반영하는 모습 시현
 - 그러나 이후 잭슨홀 영향 감소하는 모습 속에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속 미 국채 금리 급등으로 달러 강세 영향 반영하며 1,169원대까지 상승

시장 참가자들의 테이퍼링 기대가 달러 강세 견인 속 중국 헝다 그룹 파산 위험 우려 등이 환율 상승 재료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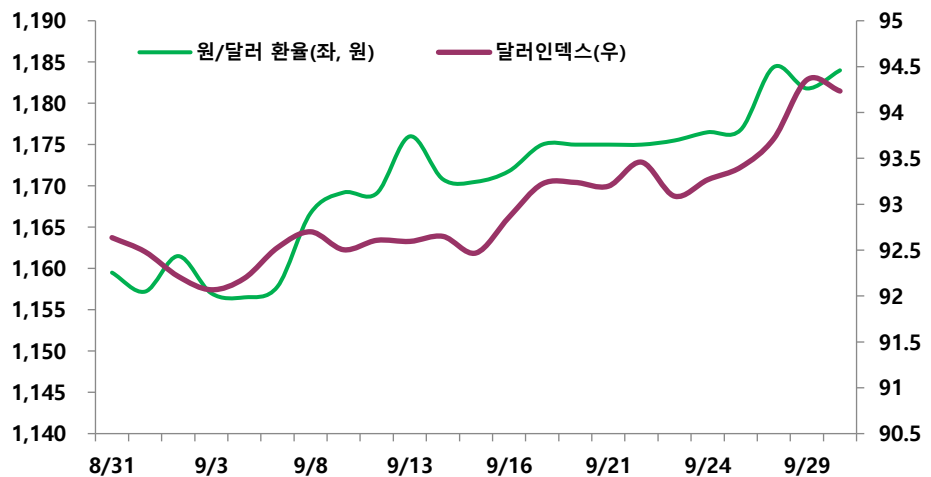
- 월 중반에도 미 금리 상승 추세 유지 속 대내적 외국인 역송금 등으로 상승 이어간 가운데 중국에서 불거진 헝다 그룹 디폴트 리스크 확대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크게 자극
 - 중반 들어 잭슨홀의 완화적 영향 희석된 분위기 속에 미 금리 상승세 등에 따른 시장참가자들의 연속적인 테이퍼링 기대와 국내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역송금 수요 강화 등으로 상승 흐름 지속
 - 여기에 중국 부동산 헝다 그룹의 파산위험 확대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강화로 환율은 1,170원대 중반까지 치솟는 양상 시현

FOMC에서의 금리점도표 상향 등이 시장 테이퍼링 기대 확대한 가운데 미 국채금리 급등 등에 따른 글로벌 증시 하락이 위험 회피 심리 강화

- 9월 후반, 중국 헝다 그룹 파산 우려 완화에도 FOMC에서 금리점도표 상향 등 일부 매파적 스탠스가 미 국채금리 급등 견인하는 가운데 1,18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양상 보이며 마감
 - 중국 헝다 그룹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있음에도 긴급 이자 지급 등에 따라 다소 불확실성은 완화되는 모습을 보임
 - 그러나 FOMC에서 금리 점도표 상향과 일부 매파적 스탠스 보임에 따라 테이퍼링 기대 확대, 미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글로벌 증시 폭락 등이 위험회피 심리 키우며 1,180원대 안착 모습 보이며 마감

9월 달러/원 평균환율 : 1,169.8
9월말 달러/원 환율 : 1,184.0

달러/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



자료: 하나은행

10월 전망

중국 기업 신용리스크 확대에 의한 경제 불확실성이 국내 델타 변이 영향과 맞물리며 원화 약세를 심화 시킬 수 있는 상황 속 대외적 미 금리 상승으로 인한 달러 강세가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

평균	1Q21	2Q21	3Q21	4Q21
달러/원 환율(원)	1,114.7	1,118	1,159	1,190 ^(F)

중국 기업리스크 사태 추이와 전력난 등에 따른 경기 회복력 약화 등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확대할 가능성 상존

연준의 금리 점도표 상향, 공급망 병목 현상 등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상승을 자극할 가운데 미 국채금리 상승 기조는 다소 이어질 전망

10월 달러/원 환율 1,180 ~ 1,195원 변동 예상

- 중국 헝다 그룹 파산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지방 정부 등으로의 부채 위기 전이 가능성 상존 속 전력난 사태 등으로 중국 경제 성장 동력 약화에 따른 위안화 약세 흐름 등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 - 중국 기업 파산 리스크 우려가 다소 약화된 했으나, 헝다 그룹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황은 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이슈 발생 시점에서는 위험회피 심리를 키울 수 있을 전망
 - 이러한 기업 채무불이행 리스크는 중국 지방 정부 등으로 파산위험의 전이 가능성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전력난 등에 따른 경기회복 불확실성 확대 등이 위안화의 약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원화의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
- 연준 2022년 점도표 상향에 따른 영향과 최근 공급망 병목 현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이 시장 테이퍼링 기대를 연속적으로 높이는 측면이 강달러 흐름을 지속하게 할 것으로 보임
 - 9월 FOMC에서의 매파적 금리점도표 상향과 이어진 11월부터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할 것 이란 시장 기대가 높아짐에 따른 영향이 강달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
 - 여기에 최근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한 언급을 통해 장기간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연준 의장의 기조가 미 국채금리 상승을 견인하는 가운데 기술주 중심의 거품 해소 충격 등의 영향도 위험회피 심리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
- 국내적 국내 경기 개선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한은의 금리인상 가능성 점증은 환율 상단을 제한할 요인으로 보이나, 워드코로나 전 델타 변이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지 않은 측면이 국내 경제 체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원화의 약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전망
 - 대내적 성장 전망 경로 유지되는 가운데 한은의 10월 또는 11월 중 금리인상 기대에 대한 시장 기대는 환율 상단을 제한할 요인으로 판단되나 그 영향을 크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
 - 그러나 워드코로나 진입 전 델타 변이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점이 국내 경제 체력을 제한하고 있고, 여기에 대외적 달러 강세에 의한 영향이 국내 외국인 자본 유출 증가를 강화 시킬 수 있다는 측면은 원화 약세를 가속화 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

상승 요인 vs. 하락 요인

상승요인	하락요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국 헝다 관련 신용리스크 상존 · 공급망 병목 현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지속 · 미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점진적 워드 코로나 전환 가능성 · 한은 추가 금리 인상의 시장 기대

자료: 하나은행

이종통화

엔/원 전망

일본의 신 내각 출범과 워드 코로나 진입 상황에도 빠른 경기 회복 쉽지 않을 전망. 여기에 미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 기대 등이 엔화 약세에 영향 미칠 전망. 엔/원 환율은 미-일 금리차 확대 속 테이퍼링 기대 등에 따른 엔화 약세에도 상대적 원화 약세 예상으로 상승 전망

9월 달러/엔 평균환율 : 110.2
9월 엔/원 평균환율 : 1,062.9

10월 엔/원 예상범위 : 1,055~1,080

- (동향) 일본 총리 사임 표명 등이 정치리스크화 하면서 엔화 약세 출발 후 미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달러 약세 기조 속 강세 전환. 이어 미-중간 정상 통화에도 따른 위험 선호 영향 속 미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 반영되며 약세 반전. 중반, 미 경제지표 부진, 미-일 금리차 축소 등으로 재차 강세 전환하다 중국 헝다 그룹 파산 리스크 영향에 따른 달러 강세 속 다시 약세로 전환. 월 후반 들어 9월 FOMC의 매파적 금리 점도표 상황과 미-일 금리차 확대, 연준의 사록의 매파적 성향 반영 등으로 약세 기조 이어지며 마감
- (엔/원 전망) 코로나와 더불어 가는 상황으로의 전환을 택한 일본의 경제 여건이 급속도로 강화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상황. 여기에 새 내각 출범 후 정치 리스크 및 최근 미-일 금리차 확대 요인 등이 엔화 약세에 영향 미칠 것으로 판단
 - 워드 코로나를 택한 일본 경제의 여건이 급속도로 개선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. 여기에 새 내각 출범에 따른 외교적 안정의 정치적 불확실성 상존 등이 단기 엔화 약세 요인으로 예상
 - 여기에 미 테이퍼링 기대에 따른 미-일 금리차 확대 등도 엔화 약세 요인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화 약세 심화가 엔화를 상회할 가능성 등에 따라 엔/원 환율 상승 우위가 예상

유로/원 전망

유로존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ECB는 완화적 기조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 국채금리 상승 등에 따른 달러 강세 우위 예상 속 원화의 상대적 약세 흐름 전망에 유로/원 환율 상승 예상

9월 유로/달러 평균환율 : 1.1765
9월 유로/원 평균환율 : 1,377.7

10월 유로/원 예상범위 : 1,315~1,360

- (동향) 미국 고용지표의 시장 예상 대폭 하회에 따라 달러가 약세를 보이며 유로 강세 출발. 이후 연준 베이지북의 성장 속도 둔화 언급에 잠시 약세 전환하다 ECB의 PEPP매입 속도 완화 시사 속 미-중 정상간 통화가 위험선호 영향 미치며 강세 전환. 이어 미 금리 상승과 테이퍼링 기대, 중국 헝다 그룹 파산위험 등으로 약세 재전환 후, 월 후반 연준의 매파적 금리점도표 상황 및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등의 영향 반영되며 약세 흐름 속에 마감
- (유로/원 전망) ECB의 유동성 지원 정책 지속에 따른 완화적 통화정책이 일부 유로존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있으나, 여전히 미국에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상황. 여기에 미 연준 테이퍼링 시장 기대 등이 지속적 달러 강세 견인하는 측면이 유로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
 - ECB의 완화적 기조의 유동성 지원 정책 지속은 미 테이퍼링 기대에 따른 상대적 달러 강세 우위에 유로 약세 견인 요인. 다만 유로 경제가 점진적 회복 기조를 보이는 점은 약세 제한할 것으로 예상
 - 전반적 유로 약세 기조 예상에도 원화에 대한 달러 강세 영향이 다소 확대될 전망에 따라 유로/원 환율 점진적 상승 예상

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(2021.10월)

SUN	MON	TUE	WED	THU	FRI	SAT
					1	2
					안 9월 수출/수입(34.9%/44.0%, YoY) 9월 무역수지(\$1670M), 9월 Markit PMI 제조업(51.2) 미 9월 ISM 제조업지수(59.9) / ISM 고용(49) 9월 ISM New Orders(66.7) 9월 ISM 구매관리지수(79.4) 9월 Markit 제조업 PMI(60.5) 유 9월 Markit PMI 제조업(58.7) 9월 CPI(0.4% MoM, 1.6% YoY) 일 9월 지분은행 PMI 제조업(51.2)	Fed's Harker Discusses the Economic Outlook ECB's Schmelzer Speaks at Fed Conference
					3	4
	*주: 1.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. [P]-잠정치, [F]-확정치, [SA]-계절조정, [A]-예고치, 0안은 이전치	4 한국 휴장(대체 공휴일) 미 8월 내구재 주문[F], 제조업 주문(0.4%) 유 10월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(19.6)	5 RBA 통화정책회의 안 9월 CPI(0.6% MoM, 2.6% YoY) 9월 외환보유고(\$463.93b) 미 9월 ISM 서비스(61.7) 9월 Markit PMI 종합(54.5)/서비스(54.4) 8월 무역수지(-\$70.1b) 유 9월 Markit PMI 종합(56.1)/서비스(56.3) 8월 PPI(2.3% MoM, 12.1% YoY) 일 9월 지분은행 PMI 서비스(47.4)/종합(47.7) 9월 도쿄 CPI(-0.4%, YoY) 호 10월 RBA 기준금리(0.10%)	6 유 8월 소매판매(-2.3% MoM, 3.1%, YoY) 독 8월 공장주문(3.4% MoM, 24.4% YoY)	7 안 8월 BoP 경상수지, 상품수지 미 10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9월 실업보험 연속수급 신청자수 중 9월 외환보유고(\$3232.12b)	8 미 8월 소비자신용지수(\$17,004b) 9월 민간부문 고용자수 변동(243K) 9월 실업률(5.2%) 9월 시간당 평균 임금(0.6% MoM, 4.3% YoY) 중 9월 Caixin 종합 PMI(47.2)/서비스 PMI(46.7) 9월 신규 위안화 대출 CNY(1220.0b) 일 8월 가계 소비지출(0.7%, YoY) 8월 실질 임금총액(0.7%, YoY)
					8	9
					10	11
	11 한국 휴장(대체 공휴일) 안 9월 BoK 7일 Repo 금리(0.75%) 유 10월 ZEW 서베이 예상(31.1) 독 10월 ZEW 서베이 예상(26.5)	12韓 금융위정례회의 안 9월 통화규모 L(0.9%, MoM), M2(0.9%, MoM) 9월 실업률(2.8%) 미 9월 CPI(0.3% MoM, 5.3% YoY) 9월 NRB 소기업 낙관지수(100.1) 유 8월 산업생산(1.5 MoM, 7.7% YoY) 중 9월 무역수지(\$376.31b) 9월 수출/수입(25.6%/33.1%, YoY) 일 9월 통화량 M2(4.7%, YoY), M3(4.2%, YoY) 9월 공작기계 수출 전년비(11.1%)	13 유 8월 ECB 경상수지(21.6b) 8월 CPI(3.0%, YoY) 중 1년 위안화 대출금리(3.85%) 5년 위안화 대출금리(4.65%) 독 9월 PPI(1.5% MoM, 12.0% YoY) ECB Survey of Professional Forecasters	14 안 9월 수출물가지수(1.0% MoM, 18.6% YoY) 9월 수입물가지수(0.6% MoM, 21.6% YoY) 미 9월 FOMC 회의록 공개 10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0월 실업보험 연속수급 신청자수 9월 PPI(0.7% MoM, 8.3% YoY) 중 9월 CPI/PPI(0.8%/9.5%, YoY) 일 8월 광공업생산 8월 설비가동률(-3.4%, MoM)	15 미 9월 수출물가지수(0.4% MoM, 16.8% YoY) 9월 수입물가지수(-0.3% MoM, 9.0% YoY) 8월 기업채고(0.5%) 10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, 경기현황 Fed's Harker Discusses the Economic Outlook	
					17	18
	미 9월 설비가동률, 광공업생산(0.4%, MoM) 10월 NAHB 주택시장지수(76) 중 9월 소매판매(2.5%, YoY) 9월 광공업생산(13.1%, YoY)	18 미 9월 주택착공건수(3.9% MoM) 9월 건축허가(6.0% MoM) 유 8월 건설생산(0.1% MoM, 3.3% YoY)	19 유 8월 ECB 경상수지(21.6b) 8월 CPI(3.0%, YoY) 중 1년 위안화 대출금리(3.85%) 5년 위안화 대출금리(4.65%) 독 9월 PPI(1.5% MoM, 12.0% YoY) ECB Survey of Professional Forecasters	20 유 8월 ECB 경상수지(21.6b) 8월 CPI(3.0%, YoY) 중 1년 위안화 대출금리(3.85%) 5년 위안화 대출금리(4.65%) 독 9월 PPI(1.5% MoM, 12.0% YoY) ECB Survey of Professional Forecasters	21美 Beige Book 발표 안 9월 PPI(7.3%, YoY) 미 10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(30.7) 9월 기준주택매매(-2.0%, MoM) 10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0월 실업보험 연속수급 신청자수 유 10월 소비자자기대지수	22 미 10월 Markit PMI 제조업/서비스/종합 유 10월 유로존 Markit PMI 제조업/서비스/종합 일 9월 전국CPI(-0.4% MoM) 9월 지분은행 PMI 제조업/서비스/종합
					24	25
	안 9월 소매판매 미 9월 시카고 연방 국가발동 지수(0.29) 10월 달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독 10월 IFO 기업판경지수(98.8)	25 미 10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자기대지수 10월 F#A 주택가격지수 10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 지수 일 9월 PPI서비스(1.0%, YoY)	26 유 9월 M3 통화규모(YoY) 중 9월 산업생산 일 10월 일본은행 정책금리전고(-0.1%) 독 11월 GfK 소비자 자기대지수	27BOJ 통화정책회의(~28) 유 9월 M3 통화규모(YoY) 중 9월 산업생산 일 10월 일본은행 정책금리전고(-0.1%) 독 11월 GfK 소비자 자기대지수	28ECB 통화정책회의 미 3Q GDP물가지수(6.1%), GDP연간QoQ(6.6%) 3Q 개인소비 10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0월 실업보험 연속수급 신청자수 유 10월 ECB 단기수신금리(-0.5%) 10월 경기/산업/서비스/소비자 기대지수	29 안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제조업/서비스/종합 9월 광공업생산, 경기순환형 선행지수 변동 미 10월 MNI 시카고 PMI 10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, 경기현황 10월 캔자스시 제조업활동 9월 개인소득, 개인소비지수 9월 PCE 디플레이터 일 9월 광공업생산, 연간 주택착공지수 10월 소비자 기대지수
					31	30
	EU Commission Economic Forecasts				U.S. Federal Reserve Releases Beige Book ECB President Christine Lagarde Holds Press Conference	

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.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,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.

본 자료는 하나은행 외환포털(<http://fx.kebhana.com>) → 환율 → 외환시장동향 →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